

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연구

김 갑 진*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 III.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성격
- IV. 맺음말

국문요약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축성된 경상도 연해지역에 분포하는 판축토성은 최근 조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김해고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부산 구랑동성지, 부산 동래고읍성, 부산 당감동성지, 사천 선진리성, 울산 반구동토성, 울주 화산리성지등 8개소의 판축토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해안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기단부의 구성에 있어서 조잡한 장방형의 할석을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단부에 2~3단의 석축을 배치하였다가 석재를 쌓아올려 피복하는 형태로 마감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성곽의 평면둘레 및 영정주 간격, 체성부 폭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성곽이 가진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들은 기능별로 치소성과 보루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성곽들은 당시 국가체제의 정비와 아울러 왜구를 비롯한 동여진등의 외적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초축 혹은 수, 개축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판축토성, 연해지역, 기단부, 영정주, 체성폭, 치소성, 보루성

본 논문은 2010년도 동아시아문화연구소학술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필자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慶尙道 沿海地域 版築土成 研究』, 2011)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동양문화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은 삼국시대 이래로 남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 경상도 연해지역의 경우 삼국시대 신라를 비롯해 고려, 조선에 이르는 시기까지 왜구를 비롯한 해양으로부터 침공하는 외적과 가장 먼저 조우한 접경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활발한 축성을 실시하여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도모하였다.

삼국시대 신라의 주요 적대세력은 백제나 가야 각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러서는 주요 적대세력이 왜구 등의 이민족 해양세력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전환에 따른 축성이 이루어져 삼국시대와는 다른 형태와 기능의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국시대의 경우 내륙 및 산지에 분포하는 산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통일신라후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연해지역의 구릉성 산지 및 평지에 분포하는 판축토성이 다수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토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표적으로 나동욱, 김용민, 고용규 등의 연구성과가 알려져 있다. 나동욱¹⁾은 경남지역에 분포하는 판축토성을 대상으로 속성을 분석하여 판축토성의 기단부 구성으로 세 가지 분류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내외벽에 기단석이 없는 무기단석축형, 두 번째는 내벽이나 외벽에 기단석축이 있는 기단석축형, 세 번째는 내벽이나 외벽 또는 기단부에서 일정 높이까지 내, 외벽을 돌로써 겹쌓기한 석축형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무기단석축형에서 기단석축형, 석축형의 순서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용민²⁾은 부소산성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축토성의 구조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른 지역의 판축토성과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삼국시대초기의 순수판축기법에서 백제말기 이후에 발생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석축과 판축기법이 혼합된 유형이 나타나며 이후 판축기법이 약화되어 고려말 조선초의 성토다짐에 가까운 형태로 구분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조사예와 비교 검토하였다.

고용규³⁾는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판축토성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기저부 석

1) 나동욱, 「경남지역의 토성 연구-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을 중심으로」, 『박물관연구논집』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58~59쪽.

2) 김용민, 「부소산성의 성벽축조기법 및 변천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26, 한국상고사학회, 1997, 115~117쪽.

열과 목주간의 간격을 비교하여 I 형식을 기저부에 석열이 없이 판축한 형식으로 목주간의 간격을 100~200cm 내외로 하였고, II 형식은 기저부에 석열을 배치한 후 판축한 형식으로 목주간의 간격은 300~400cm 내외로 상정하였다. 이는 다시 a, b의 두 형식으로 세분되는데 a형식은 기저부의 한쪽면에 석열을 배치한 후 판축한 형식이고 b형식은 기저부의 양쪽면에 석열을 배치한 후 판축한 형식이라고 하여 시기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앞선 연구들은 토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여 향후 연구에 있어 큰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는 체성구조 변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나말여초에 경상도 연해지역에 축성된 판축토성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김해 고읍성, 동래 고읍성, 마산 회원현성지, 부산 구량동성지, 부산 당감동성지, 사천 선진리성, 울산 반구동 토성, 울주 화산리성지를 대상으로 비교, 분류하여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제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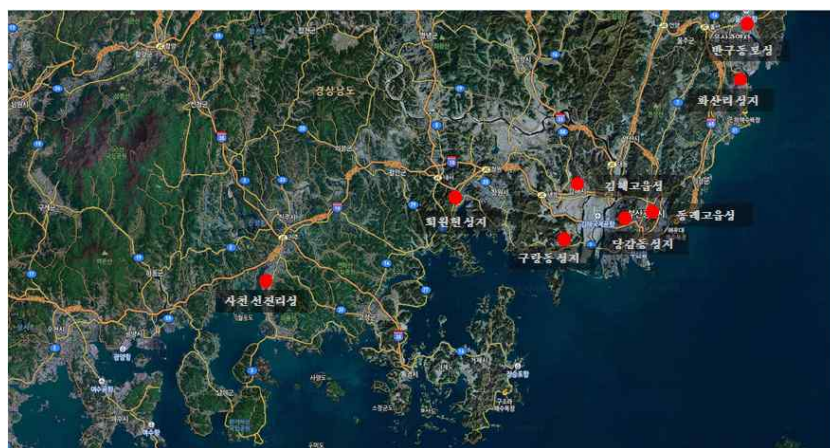
II.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1. 대상유적 현황

연해지역이란 일반적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육지를 일컬으며 본고에서 사례를 검토한 대다수의 성곽유적들이 해안에서 약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해지역이란 명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성곽들은 도 1에서 보듯이 바다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과도 인접해 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축성 당시부터 바다와 강을 통한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수운로를 강제할 수 있는 지점에 성곽이 입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곽들은 대부분 해발 50m 이하의 비교적 낮은 지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곽들의 축조 및 중심사용연대는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후기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평지에 입지하는 유형과 구릉성 산지에 입지하는 유형으로 나뉘고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성곽의 평면둘레, 체성부 폭, 영정주 간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입지여건에 따른

3/ 고용규, 「남한지역 판축토성의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2~63쪽.

규모의 차이에서 각 군현의 치소⁴⁾로 사용하기 위해 축성된 성곽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조망이 유리한 해안가에 축성된 성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 1.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분포도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 성곽 중 먼저 평면둘레 약 1000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성곽은 김해고읍성,⁵⁾ 부산 동래고읍성,⁶⁾ 부산 당감동성지,⁷⁾ 마산 회원현성,⁸⁾ 사천 선진리성,⁹⁾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해고읍성은 분석대상인 8개소의 성곽 중 해안지역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하나 인접한 낙동강 수계와 이어지는 남해안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해지역 성곽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김해고읍성은 현재 김해시가지가 펼쳐져 있는 봉황동 일원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대에 설치한 ‘五小京’ 중 하나이며 문무왕 20년(680)에 ‘金官小京’을 설치하고 경덕왕 16년(757)에 ‘金海小京’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¹⁰⁾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태조23년(940)에 ‘金海府’로 고쳤으며, 이후 ‘臨海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臨海郡’으로 승격하였다. 성종14년(995)에는 ‘金州 安東都護府’를 설치하였다.¹¹⁾ 이처럼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김해지역은 남해안

4) ‘치소의 사전적 의미는 “地方官의 官署”로 조선시기의 치소는 외관이 파견된 지방 행정단위에 서만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서도 치소가 존재하였다. 최종석,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3쪽.

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고읍성』, 2008.

6)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고읍성』, 2007.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당감동성지』 I, 1996.

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회원현성』, 2008.

9)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 선진리성』, 2007.

10) 『三國史記』卷五十四「雜誌」第三 地理 新羅條

과 낙동강이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이러한 성곽을 축성해 행정중심지로서 치소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동래고읍성과 당감동성지가 위치한 부산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동, 남해안에 면한 동남쪽을 제외하고는 김해, 양산, 울산과 접하고 있다. 예로부터 국방상의 전략요충지로서 남해안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동래고읍성이 위치한 동래지역은 삼한시대 이전에 ‘菴山國’ 또는 ‘居漆山國’이라는 고대국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영강을 따라 해안지역과 연결되는 곳이다. 동래고읍성은 통일신라 경덕왕대의 왕권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군이 설치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보고자는 판단하고 있으나 동래고읍성내의 출토 유물 중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고려시대에도 계속 경영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동래고읍성은 東萊郡의 치소로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일정기간동안 조선시대 동래읍성이 축성될 때까지 지역의 치소이자 남해안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주요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감동성지는 초축 및 중심 사용연대가 고려시대로 판단되는 유적으로 현재의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일원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東平縣의 치소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산 회원현성은 고려시대 合浦縣, 會原縣의 치소로 사용되던 곳이며 현재 회원현성이 위치한 곳은 마산의 가장 중심지인 무학산 남쪽 기슭에 돌출한 해발 143.8m의 낮은 야산의 서남쪽 계곡을 둘러싼 형태로 추정 망대지가 위치한 정상부에서 바라본 남쪽은 마산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남해안을 조망하기에 탁월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¹²¹⁾ 회원현성지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골포현, 고려시대 합포현, 회원현의 치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기능을 수행하던 치소성이었다. 특히 회원현성은 고려 말 元의 세조에 의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곳으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여몽연합군의 출발지와 주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합포성(지금의 합성동)으로 옮겨가기 전의 절도사영으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던 행정적으로나 군사상으로 중요시되던 유적이다.

사천 선진리성은 사천만 연안에 축조되어 있으며 사천지역은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진주를 비롯한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에 해당한다. 선진리성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연안지역인 사천만에 축조된 성곽으로 중요한 관문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방어적 기능에 못지않게 대내, 외

121) 『高麗史』卷57, 「誌」第11 地理二

12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2008.

교역을 위한 경제적 기능도 증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⁵³⁾

다음으로 구랑동성지, 화산리성지, 반구동토성의 경우에는 치소성과는 다른 성격으로 소규모의 군사가 주둔하여 경계와 조망의 역할을 위한 목적으로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랑동성지는 최근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으로 고려시대 주진성과 함께 군사적 주요 거점에 설치된 일종의 감시초소의 역할을 하였던 ‘戍’의 성격을 띠는 유적으로 판단된다.¹⁴⁾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단행된 지방체제 개편에 의해 지금의 김해인 金州를 ‘安東都護府’로 삼았다는 기사에 비추어 볼 때 금주에 속한 戍로써 전방초소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랑동성지가 위치한 곳이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으로 남해안에서 김해를 비롯한 내륙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에 해당하며 남해안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를 감제하는 요충지인 이곳에 전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戍를 설치, 운영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⁵⁾

화산리성지는 위치적으로 남해안과 접하면서 신라의 해상관문로였던 울산항의 입구에 위치하여 신라에서 왜구방비를 목적으로 이곳에 전초기지의 역할을 위해 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 사용시기는 고려시대로 판단되며 조선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내도 협소한 편이라 대규모의 군사가 장기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이처럼 해안지대에 축성되어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¹⁶⁾

반구동토성은 울산시 동쪽의 독립된 구릉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태화강과 동천이 만나 삼각지를 형성하는 곳에 축조되어 있으며 바다와 강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교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된 구릉위에 해당하여 전략상의 성을 배치하기에 알맞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¹⁷⁾ 반구동 토성은 구랑동성지나 화산리성지와 유사한 해안경계의 기능을 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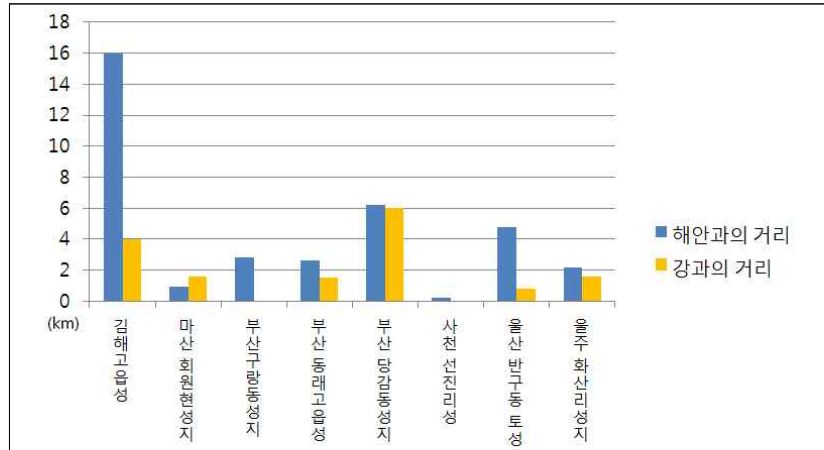
153) 경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7.

14) 동양문물연구원, 『부산 구랑동성지』, 2013.

15) 구랑동성지의 경우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 아래 지역을 조망하는 동시에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교통상의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16)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주화산리성지』, 1990.

17) _____, 『울산반구동토성』, 1990.



도 2.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해안 및 강과의 이격거리

2. 평면형태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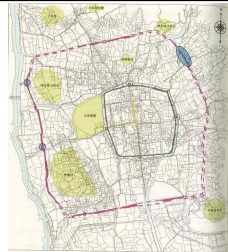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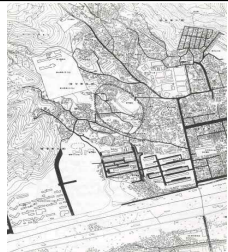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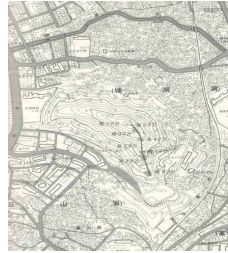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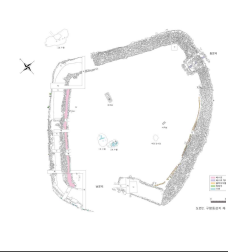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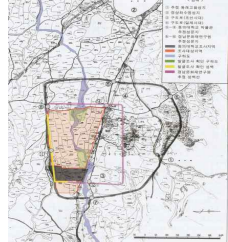

1) 평면형태

그리고 이들 성곽의 평면형태는 크게 방형과 타원형의 형태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방형의 경우 체성부 4면이 모두 직선을 이루어 직교하는 형태의 방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체성의 한쪽면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다소 변화된 형태의 방형에 해당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¹⁸⁾에 따른 분류안 가운데 체형과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방형에 속하는 형태의 성곽은 김해고읍성, 동래고읍성, 화산리성지, 구랑동성지, 회원현성지, 선진리성 등이 있으며 타원형의 형태를 띠는 성곽은 당감동성지, 반구동토성이 있다. 회원현성지의 경우 현재 잔존 구간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형태로서 성내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현재의 몽고정을 포함하여 마산 시립박물관을 따라 내려오는 체성 진행방향을 고려하면 방형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형형태의 성곽 중 동래고읍성, 화산리성지, 구랑동성지

¹⁸⁾ 이일갑, 「남해안지역 연해읍성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1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144쪽.

¹⁹⁾ 논문에서 저자는 체형은 체성부의 4면 가운데 한면의 돌출로 인하여 생겨난 굴절된 지점이 직각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어 마치 평면형태가 “L”형을 이루거나 돌출된 지점이 점차 사선화되는 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를 포함한 그 이전에 축조된 토성의 경우,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되는 평면형태에서 체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상으로 화산리성지와 동래고읍성의 평면형태에서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의 경우에는 방형의 형태를 띠면서 모두 동쪽이 돌출되어 완만한 호상을 그리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구랑동성지의 경우 토축으로 축조된 구간은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나 석축으로 축조된 구간은 호상을 그리는 형태인데 이는 축성 시 협판을 사용하여야 하는 판축토성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상도 연해지역에 위치한 판축토성은 대부분 방형에 가까우며, 이들 성곽의 초축시기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로

유적명	평면형태	유적명	평면형태
김해고읍성		부산 당감동성지	
마산 회원현성지		사천 선진리성	
부산 구랑동성지		울산 반구동토성	
부산 동래고읍성		울주 화산리성지	

도 3.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평면형태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성곽과 고려시대에 축성된 성곽 간에 유사한 평면형태를 가지는 것은 판축토성 축성의 특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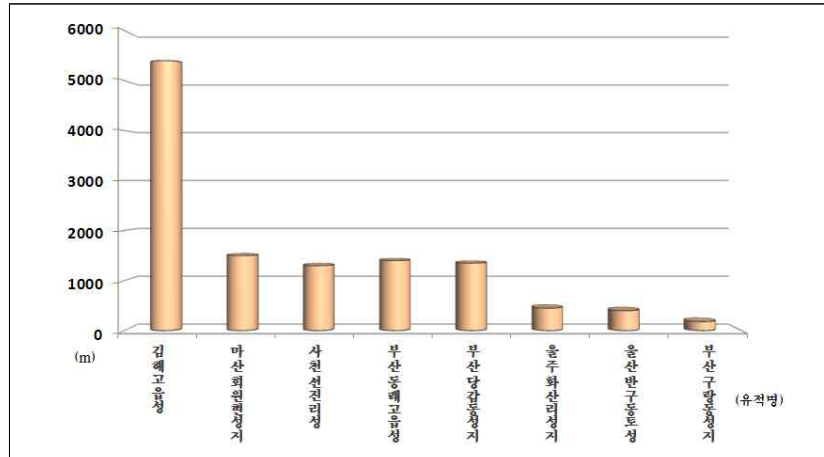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판축토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입지나 형태가 가지는 특징이 산지에 위치하여 자연지세를 따라 축조되어 부정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 이전 시기의 토성들과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형태의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은 평지에 위치한 토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삼국통일 이후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신라성곽의 주류는 석축으로 축조된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²⁰⁾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판축토성이 축조되고 그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지속적으로 토성이 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규모

체성의 둘레는 성곽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곽이 가진 기능과도 연관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성곽의 크기는 성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곽은 평시에 치소성으로서의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일정규모 이하의 성곽의 경우 많은 인원이 장기간 입보, 농성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므로 소규모 군대가 주둔한 군사적 목적의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 연해지역에 분포하는 판축토성들의 체성둘레는 최대 약 5400m에 달하는 크기에서부터 최소 약 190m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각 성곽들의 둘레는 김해 고읍성(약 5,400m), 마산 회원현성지(약 1,400m), 사천 선진리성(약 1,300m), 부산 동래고읍성(약 1,400m), 부산 당감동성지(약 1,350m), 울주 화산리성지(약 450m), 울산 반구동토성(약 400m), 부산 구랑동성지(약 190m)등으로 확인되며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도면 4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들 성곽은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면둘레에서 2000m 이상의 A형(김해고읍성), 1000~2000m에 해당하는 B형(마산 회원현성지, 사천 선진리성,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 1000m 이하의 C형(부산 구랑동성지, 울주 화산리성지, 울산 반구동 토성)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A, B형은

²⁰⁾ 차용걸 외, 『京畿道の 城郭』13, 경기문화재단, 2003, 173쪽.



도 4.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 체성둘레

규모나 입지하는 특성을 볼 때 지역의 치소성 혹은 치소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구랑동성지, 화산리성지, 반구동토성 등은 지역의 거점인 치소성과는 성격이 틀린 소규모 군대가 주둔하여 감시,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군사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는 보루성²¹⁾의 역할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성곽으로 고려시대에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해안으로 침입하는 세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울산지역에 위치하는 화산리성지나 반구동토성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東京(경주)로 가기 위한 해안지역에 입지함으로써 1차적인 방어선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구랑동성지의 경우 당시 치소인 김해로 가는 길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치소성들이 기능하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보루성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해안방어선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²⁾

21) 보루(堡壘)의 사전적 의미는 '전략적 요충지에 군사 주둔을 목적으로 축성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성으로 일반적인 관아시설이나 주민이 거주하는 치소성(治所城)과는 구별되는, 비교적 작은 방어시설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 봉수편』, 2011, 519쪽.

22) 현재 고려시대 '戍'와 같은 소규모의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의 조사례는 매우 드문편이나 이러한 형태의 성곽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군사상, 교통상의 요지에 다수가 분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에 구랑동성지와 유사한 유적의 발굴성과가 기대된다.

3. 축조수법

1) 기단부의 구성

상기한 경상도 연해지역 성곽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판축법으로 축조된 토성이라는 점이다. 토성축조에 사용된 판축기법이 가지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版築’이란 용어 중 ‘版’은 성벽이나 담장 등을 쌓을 때 흙의 양쪽에 대고 쌓는 판자를 말하고, ‘築’은 흙을 다지는 방망이를 말한다.²³⁾ 이는 성벽, 담장, 건물의 기단 조성 등을 위해 版으로 틀을 만들어 가운데 흙이나 모래등을 層狀으로 넣어 방아로 짚어서 단단하게 하고 차례로 높게 흙을 쌓아 올리는 기법, 또는 그 쌓아올린 흙 자체를 가리킨다. 판축토성은 체성부 자체의 견고함은 비록 석성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할 만큼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보이나 축성재료의 특성상 우수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에 기타 요인과 함께 체성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단부에 석열을 배치하는 형태가 나타나 기저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성의 기단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정도는 이전시기 석성에서 보이는 정연한 형태의 가공정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석성에서 보이는 정연한 형태의 ‘品’자 쌓기 같이 절석가공한 석재들로 줄눈을 맞추어 빈틈을 최소화하여 쌓은 형태는 아니지만 바른층 쌓기를 실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석재의 두께 : 길이의 비가 1:4 가량인 세장방형 석재들의 활용빈도가 높다. 이러한 외벽면석의 형태는 방형 혹은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활석을 정연하게 가공한 삼국시대 성곽과의 차이점이며 이후 조선시대 읍성에서 보이는 장대석을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로 자연대석의 성석을 이용하는 수법과도 차이가 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정연한 절석가공에 비해 가공정도가 조잡한 석재를 사용하여 기단부 축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장방형 석재들의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고려시대 판축토성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으로 관찰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처럼 기단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사용하는 석재의 가공정도나 쌓은 수법 등에서 성곽들간에 큰 차이를 보

²³⁾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昭和60年, 217쪽, 여기에서 版과 板은 건축의 의미에서 는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다. 나동욱, 「경남지역 토성의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8쪽, 주33 참고.

²⁴⁾ 마산 회원현성지에서 체성 기저부를 따라 경사면에 다량의 기외편이 출토되어 보고자는 이를 체성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평기외를 피복하는 형태로 체성 상부에 덮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구랑동성지의 경우 이처럼 체성상부를 기외편으로 피복하였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판축토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지는 않으나 일부 유적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외벽과 내벽을 쌓은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내벽이나 외벽 기단부 일정높이까지 내, 외벽을 석재를 활용해 쌓아올리기를 실시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이는 나동욱의 분류²⁵⁾에 의하면 석축형 판축토성에 해당하는데 화산리성지의 일부구간과 마산 회원현성지, 그리고 부산 구량동유적 등지에서 확인된다. 화산리성지의 경우 LTr과 MTr에서 나타난 양상을 볼 때 외벽에 석축이 보이고 있으며 석축은 잔존높이 약 150cm로 아래쪽은 40~50cm×30cm의 비교적 큰 돌로써, 윗쪽은 30~40cm×20~25cm의 판석상의 납작한 돌로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화산리성지의 평지에 가까운 부분은 기저부에서부터 성고까지 석축으로 겹쌓기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수축된 성벽에서도 석축으로 내외 협축한 성벽을 보이고 있다. 마산 회원현성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생토면을 암갈색과 적갈색의 점토를 이용하여 정지한 후 3~4단의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춰 외벽기단석을 축조하고 있다. 그 위로 점토와 사질토를 이용하여 내벽의 생토층높이까지 쌓은 다음, 내벽석을 다시 3~4단 정도 축조한 후 다시 판축을 하는 방법으로 체성을 축조하고 있다. 구량동성지는 전체적으로 경사를 이루는 생토층을 「L」자 상으로 정지한 후 적갈색 점토를 깔고 2~3단의 석재를 이용하여 판축을 실시한 형태이다. 이후 이러한 초축단계의 기단부 위로 잔존하는 석재를 기준으로 8~10단 가량의 석재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내부의 판축토 겉을 피복한 듯한 형태의 석축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구량동성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초단계에는 내외벽의 기저부에 2~3단의 석열을 배치하여 판축을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는 외벽을 일정부분까지 쌓아올려 내부의 판축토를 감싸는 형태로 석재를 쌓아올려 겹쌓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은 성곽이 입지한 지세에 따른 축성재료의 조달의 용이점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해 축성법이 선택되었고 이를 개,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석축화가 진 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들은 모두 기단석을 배치한 판축토성으로 확인되었고 토성의 기단부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도는 이전시기 삼국시대 석성에서 보이는 정연한 형태의 가공정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석성에서 보이는 정연한 형태의 '品'자 쌓기 같이 절석가공한 석재들로 줄눈을 맞추어 빈틈을 최소화하여 쌓은 형태는 아니지만 바른층 쌓기를 실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세장방형 석재들의 활용빈도가 높고 빈틈을 잔돌로 끼워 맞춘 흔적도 확인된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정연한 절석가공에 비해 가공정도가 조잡한 석재를 사용

²⁵⁾ 나동욱, 앞의 논문, 1996, 36쪽.

하여 기단부 축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장방형 석재들의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고려시대 판축토성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으로 관찰되는 요소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랑동성지, 화산리성지, 당감동성지, 회원현성지 등에서 토성의 겉면을 석재로 마감하여 쌓아올리는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처럼 토성에 석축을 가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이 시기의 토성에서 다수 관찰되는 특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유적명	기단부 축조상태	유적명	기단부 축조상태
김해 고읍성		부산 당감동 성지	
마산 회원현 성지		사천 선진리성	
부산 구랑동 성지		울산 반구동 토성	
부산 동래 고읍성		울주 화산리 성지	

도 5.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기단부 축조상태

2) 영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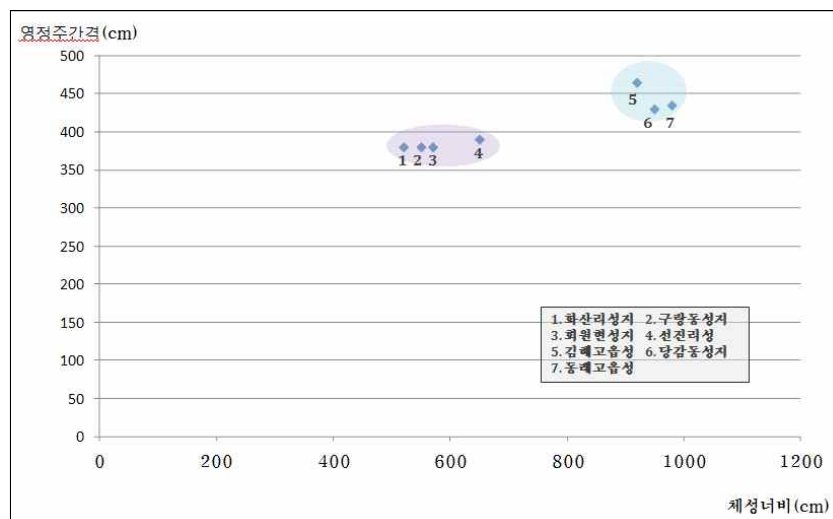
영정주는 판축 시 토사의 밀립을 방지하는 협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정주의 간격은 판축토성에서 시기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격이 좁을수록 축조연대가 빠르고, 넓을수록 축조연대가 늦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략 3~6세기 중·후반까지의 영정주 간격은 100~150cm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7세기 이후부터는 300cm이상으로 넓어진다고 하였다.²⁶⁾ 삼국시대의 성곽들에 비해 본고에서 다룬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의 성곽들의 영정주 간격은 최소 380cm에서 최대 490cm까지로 전 시기에 비해 1~2m 가량 넓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영정주 간격이 넓어지는 것은 구간별 축조공정단위가 더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성축조방법상의 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 체성폭은 영정주간 간격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시대에 축성이 이루어지는 성곽들 중 성곽이 입지하는 특성상 산성의 경우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평지에 입지하는 김해고읍성이나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에서는 영정주 간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지만 구릉성 산지에 입지하는 여타 성곽들에서는 대략 1.5배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영정주 간격을 통한 축조시기의 흐름을 관찰한 종래의 연구결과는 적어도 6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판축토성에서 나타나는 영정주 간격이 200cm이내이며 이후 7~8세기대로 접어들면서 300cm이상으로 넓어지고 다시 9세기 이후로 약 100cm 가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축성된 성곽들 가운데 김해고읍성의 경우는 간격이 최대 495cm까지 넓어지며 일반적으로 380cm에서 430cm가량의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 영정주 간격으로 성곽의 정확한 축성연대를 설정하기에는 성곽의 입지유형이나 동일한 성곽내에서도 지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으나 삼국통일을 기준으로 약 7세기 이후부터 영정주 간격이 3m 이상으로 변화의 양상이 보이며 다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4m 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정주간 간격과 체성 폭과의 상관관계는 보통 체성폭이 영정주 간격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²⁸⁾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중 구릉성 산지

²⁶⁾ 고용규, 「고려시대 성곽의 축성법」, 『한국성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성곽학회, 2009, 115쪽.

²⁷⁾ 고용규, 앞의 논문, 2009, 115쪽.

에 입지한 성곽의 경우 영정주 간격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체성폭을 가지고 있으며 평산성 혹은 평지성의 경우 영정주 간격의 약 2배에 가까운 체성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정주간 간격은 시기가 올라가는 1~2m의 좁은 간격에서 4~5m로 넓어질수록 축조단위구간이 넓어지며 이를 기술의 발전으로 이해하여 그 시기가 내려간다는 기존의 견해는 큰 틀에서 유효하나 무조건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며 적어도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을 통해 관찰했을 때 성곽이 입지하는 지세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도 6.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의 영정주 간격 / 체성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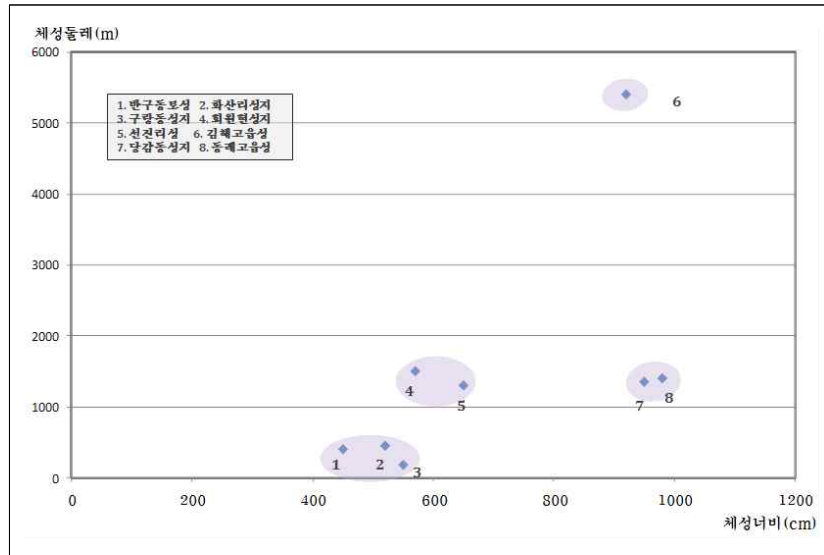
이들 성곽의 영정주 간격은 최소 380cm에서 최대 495cm로 대략 1m 가량의 차이가 있으나 체성폭과의 관계에 대입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평지에 입지한 동래고읍성, 김해고읍성, 당감동성지가 유사한 성격을 띠는 하나의 군으로 나타나고 구릉성 산지에 입지하는 회원현성지, 선진리성, 화산리성지, 구랑동성지가 하나의 군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영정주 간격의 변화는 토성축조 기술상의 발전으로 인하여 축조단위공정이 넓어지는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이해된다. 또한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들은 영정주의 간격을 통해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각 성곽이 가진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8/ 나동욱, 앞의 논문, 1996, 59쪽.

3) 체성폭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체성의 폭은 약 4.5~9.8m 사이로 편차가 다소 크나 치소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김해고읍성, 당감동성지, 동래고읍성에 서는 약 9m에 가까운 너비가 확인된다. 그러나 보루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구랑동성지나 화산리성지, 반구동 토성의 경우 각각 5.5m, 5.2m, 4.5m로 치소성의 폭에 비해 약 50~60% 가량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성폭과 체성둘레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도 7을 통해 각 성곽별로 기능, 역할에 대한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소성의 경우이들 성곽은 고위면에 입지하는 산성이 아닌 평지 혹은 표고가 낮은 구릉성산지에 입지하는 평산성의 형태로 이는 삼국통일 이후 사회의 안정으로 전쟁적 기능이 중시된 산성에서 행정적인 기능이 중시되는 평지성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며 이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 치소성에 대한 연구²⁹⁾를 살펴보면 이러한 고려시대 치소성은 고려후기 몽고침략을 계기로 방어기능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산성 위주의 축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몽고 침입이라는 대규모 전란기를 맞이하여 기존에 방치되었던 산성으로의 입보



도 7.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체성폭 / 체성둘레

²⁹⁾ 최중석, 앞의 논문, 2007, 128~130쪽.

책이 증시됨을 볼 때.³⁰⁾ 평지토성은 평시에 축조되어 전쟁적인 기능보다는 행정중심 기능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체성부 폭은 초기의 순수판축토성에서 기저부에 석열을 도입하는 6~7세기 가 되면서 점차 좁아지는데 이는 성벽 기저부의 폭을 좁게 하면서 성고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석축기단이 도입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토성의 특성상 체성 기저부의 폭이 넓을수록 높은 성벽을 축조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토성축조 기술의 발전으로 토성에 석축을 가하여 체성자체의 견고함과 비교적 적은 폭으로도 높은 성고를 얻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랑동성지의 경우 초축구간에 비해 수축구간의 체성부 폭이 약 1m 가량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당감동성지의 경우도 수축 시 약 1.5m~2m가량 폭을 줄여 성을 쌓아 수축이 진행되며 석축화의 과정을 거치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처럼 이들 성곽들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석축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토축체성의 폭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체성을 수, 개축하면서 체성부 폭에 변화가 생기는 양상은 선진리성에 있어서도 초축단계의 5.8m의 체성폭이 석축을 덧대는 수축을 거치면서 4.5m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당감동성지, 구랑동성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토성에 석축을 가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성곽축조 수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Ⅲ.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성격

1.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의 분류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들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행정적인 성격의 기능이 강한 치소성과 군사적 성격이 강한 보루성의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성 둘레 및 영정주 간격, 체성폭을 기준으로 하여 체성 둘레가 2000m 이상이고 영정주 간격이 4.5m이상, 체성폭이 9m 이상인 성

³⁰⁾ 이 시기에 축조되는 성곽들은 규모가 3~5km정도로 대형화되고 해발 400~500m 이상의 험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당시에 축조된 입보용 산성으로 추정되는 성곽은 권금성, 두타산성, 와룡산성 등으로 내륙의 고협처에 축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곽을 A형(김해고읍성), 체성 둘레가 1000~1500m 사이에 해당하고 영정주 간격이 3.8~4.3m에 해당하며 체성폭이 5.6m 이상인 성곽을 B형(마산 회원현성지, 사천 선진리성,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 체성 둘레가 1000m 이하이고 영정주 간격이 3.8~4m에 해당하며 체성폭이 5.5m 이하인 성곽을 C형(울주 화산리성지, 울산 반구동 토성, 부산 구량동성지)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성곽들은 체성둘레에 있어서 비교대상 성곽 중 가장 규모가 큰 김해고읍성의 경우 약 5400m의 둘레를 가지고 있으며 마산 회원현성지, 사천 선진리성,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의 경우 약 1300~1400m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울주 화산리성지, 울산 반구동 토성, 부산 구량동성지의 경우 500m이하의 작은 크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성곽들은 영정주 간격이나, 체성부 폭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정주의 간격은 삼국 시대에 비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영정주 간격의 변화는 토성축조 기술상의 발전으로 인하여 축조단위공정이 넓어지는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한 결과물로 이해된다. 이들 성곽의 영정주 간격은 최소 3.8m에서 최대 4.9m로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들은 영정주의 간격을 통해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각 성곽이 가진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소의 기능을 하였던 김해고읍성,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 및 회원현성지와 선진리성이 각각 비슷한 영정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루성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화산리성지, 구량동성지가 유사한 영정주의 간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경상도 연해지역 중세 관측토성 속성표

유형	성곽명	규모(m)	영정주간격 (cm)	체성폭 (m)	유형	평면 형태
A형	김해고읍성	5,400	430~495	9.2	치소성	방형
B형	당감동성지	1,350	420~430	9.5	치소성	타원형
	동래고읍성	1,400	400~435	9.8	치소성	방형
	회원현성지	620 (추정 1,300)	380~400	5.7	치소성	방형
	선진리성	920 (추정 1,400)	390	5.8	치소성	방형
C형	구량동성지	190	380~400	5.5	보루성	방형
	화산리성지	450	380	4.5	보루성	방형
	반구동토성	(추정 400)	-	4.5	보루성	방형

체성부 쪽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A, B형 중 치소성으로 사용된 성곽은 체성부 쪽이 최소 6m 이상의 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C형의 성곽들에서 나타나는 체성폭은 4.5~5.5m로 해안가에 위치한 보루성들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A, B형은 지역의 치소성으로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김해고읍성의 경우 조선시대 김해도호부의 치소였던 김해읍성이 축조되기 이전까지 김해지역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통일신라시대 금관소경이었다. 이후 고려 성종14년에 금주로 고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감동성지의 경우 고려시대 동평현치소로 사용되었으며 동래고읍성의 경우 동래군치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B유형 중 회원현성지의 경우 회원현의 치소 및 고려 후기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던 곳이며 여원연합군의 출병기지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고려초에 전국에 설치하였다고 전해지는 12조창 중 하나인 석두창³¹⁾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이다. 그리고 선진리성의 경우 보고자는 사천만 연안에 축성되어 대일무역의 전초 기지 및 해양 교통로를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유형인 화산리성지나 반구동토성, 구랑동성지등은 소규모의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산리성지의 경우 보고자는 성내가 협소하고 내부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의 군사가 주둔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랑동성지 역시 둘레 약 190m로 화산리성지의 절반 가량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성내에서 나타나는 일부 주혈로 볼 때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우 협소한 규모이며³²⁾ 성내에서의 생활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극소량인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규모의 군사가 주둔한 군사적인 전초기지의 용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산리성지나 반구동토성의 경우 보고자에 의하면 초축시기는 삼국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으나 주요 사용연대는 고려시대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성곽으로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해안으로 침입하는 세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울산지역에 위치하는 화산리성지나 반구동토성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東京인 경주지역으로 가기 위한

³¹⁾ 고려시대에 설치된 13개 조창의 하나로 判官이 배치되어 업무를 관장하였고, 중앙에서 稅米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監倉使를 파견, 감독하였다. 1,000석을 적재할 수 있는 哨馬船 1척과 기타 6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³²⁾ 정면1칸, 측면2칸의 크기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전체 규모는 대략 2m×4m 규모로 협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지역에 입지함으로써 1차적인 방어선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울주지역의 축성기록³³⁾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랑동성지의 경우 해안지대에 설치되어 당시 치소인 金州(김해)로 가는 길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소규모 성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1차적인 해안방어선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구랑동성지의 경우 고려시대 초부터 각 거점에 주진성과 함께 축조된 戍로 판단되는 유적이다. 戍는 둘레 80~200m의 토성 또는 석성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의 주진성의 관할 하에 있었다.³⁴⁾ 『高麗史』의 기록³⁵⁾에 의하면

崔冲이 寧遠, 平虜 두 鎭에 城을 쌓았다. 寧遠城은 759間이고, 堡子가 8개였다. 區內的 金剛戍는 42間, 宣威戍는 61間, 宜德戍는 50間, 長平戍는 53間, 鼎岑戍는 38間, 鎭河戍는 42間, 鐵壩戍는 61間, 定安戍는 32間이었으며....(중략)

이와 같이 고려시대 戍는 당시 각 주진성에 5~6개소의 戍가 배속되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단행된 지방체제 개편에 의해 지금의 김해인 금주를 안동도호부로 삼았다는 기사에 비추어 볼 때 금주에 속한 戍로써 전방초소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랑동성지가 입지한 곳이 남해안에 상륙한 적이 내륙지역으로 가기위한 길목에 해당하는 낮은 야산의 정상부로서 당시의 주진성이 위치하는 김해까지 직선거리로 채 10km가 되지 않고 남해안과 인접해 있는 해안지역의 요충지인 이곳에 전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戍를 설치, 운영하여 국방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⁶⁾

2.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 전개양상 및 축조배경

우리나라 성곽 발달 단계에 있어 고대의 성곽과 중세의 성곽은 획기를 나누어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고대의 성곽이 중세와 근세에 이르도록 수축을 거쳐 재사용된 경우가 많고, 중세의 성곽이 가지는 특수한 구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성곽의 꾸준한 발전의 결과로 중세의 성곽이

³³⁾ 『高麗史』卷82, 兵 志穆 城堡

³⁴⁾ 송용덕, 「고려전기 국경지대의 주진성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11쪽.

³⁵⁾ 『高麗史』卷82, 志36, 兵2 城堡 靖宗7년

³⁶⁾ 구랑동성지의 경우 독립된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 아래 지역을 조망하는 동시에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교통상의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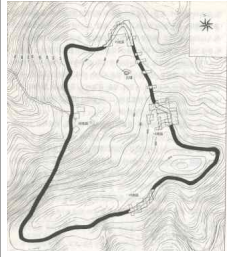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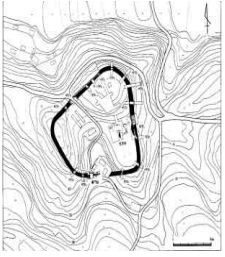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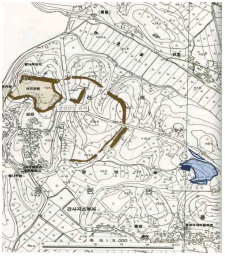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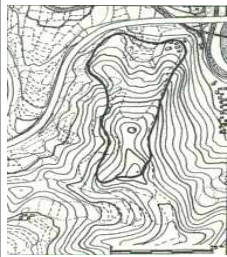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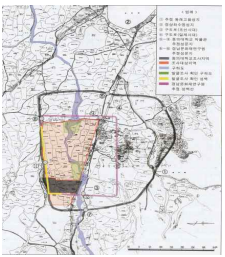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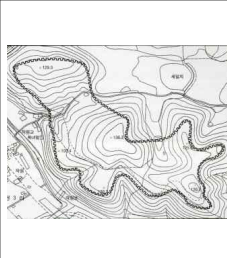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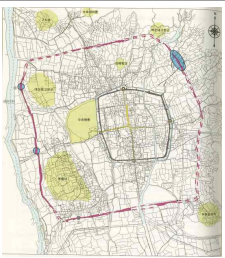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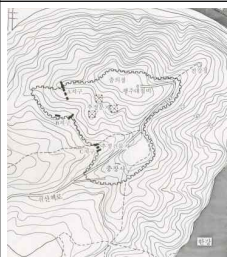

개선되어갔다고 여겨지고 있다.³⁷⁾ 이처럼 성곽유적의 특성상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일시적인 변동은 찾기 힘들지만 경상도 연해지역 관측토성들은 이전 시기의 토성들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고에서 다루었던 성곽들은 평면형태에 있어서 대부분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록 고고학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전시기의 토성에서는 대부분 일정한 형태보다는 부정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경남지역에서 발굴 또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전시기 성곽들의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양산 순지리 토성의 평면형태가 반월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남산토성의 평면형태는 남-북 장축의 장타원형, 건천작성의 경우 장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명활산성, 도당산토성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는 등 일정한 규칙보다는 성곽이 입지한 지세에 따라 축성을 실시하여 평면형태도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에 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연해지역의 관측토성들은 대부분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각 군현의 치소성 이외에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보루성들도 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후 조선전기 연해읍성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해읍성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이러한 전시기의 성곽들에서 계승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⁸⁾

둘째, 삼국시대 토성들은 대부분 해발 100~200m사이 혹은 그 이상 고지에 축성된 반면 이후 통일신라말의 토성들은 해발 50m 가량의 낮은 지대에 축성되는 차이를 보인다. 시기적으로 대략 삼국통일기 이후의 토성에서 이러한 낮은 입지를 선택하여 축성하는 양상이 보이는데 축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인 삼국시대 치소성이 위치하는 산지에서 통일신라~고려에 이르러 평지로 일부 이전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삼국시대의 전쟁이나 군사적인 기능이 중심이 된 치소성에서 삼국통일 이후 행정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는 치소성으로의 이전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해지역에 대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으로 표고가 비교적 낮은 해안지역에 축성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³⁷⁾ 차용걸 외, 앞의 책, 2003, 17~18쪽.

³⁸⁾ 이일갑, 앞의 논문, 2008, 1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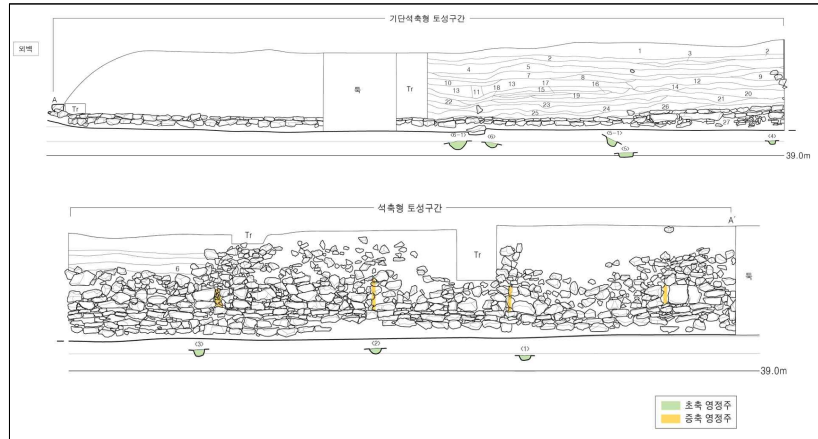
유적명	평면형태	유적명	평면형태
양산 순지리토성 (5세기)		울주 화산리성지 (8세기)	
명활산성 (5세기)		사천 선진리성 (9세기)	
남산토성 (6세기)		부산 동래고읍성 (9세기)	
건천작성 (6세기)		김해고읍성 (10세기)	
행주산성 (7세기)		부산 구량동성지 (10세기)	

도 8. 시기에 따른 판축토성의 평면형태 변화

표 2. 시기에 따른 해발고도 비교

명칭	규모(km)	축성재료	해발고도(m)	축성연대
명활산성(토성)	3.6	토성	269	5세기 초
순지리토성	0.96	토성	195	5세기
남산토성	1.2	토성	134	6세기 후반
건천작성	2.1	토성	136.3	5~6세기
양동리산성	0.9	토성	164	5~6세기
사산성	1.45	토성	176	6세기
행주산성	1	토성	80	7세기
화산리성지	0.45	토성	48	7세기
동래고읍성	1.3	토성	25	9세기
선진리성	3.7	토성	33	9세기
김해고읍성	5.4	토성	5	10세기
회원현성지	1.3	토성	72	10세기
구량동성지	0.19	토성	41	10세기
당감동성지	1.3	토성	60	11세기

셋째,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는 시기의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토성에 석축을 가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는 월평동 산성이나 사비나성, 부소산성등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백제지역에서 이미 나타나는 양상이나 성벽 외벽에만 확인되는 요소로서 경상도 연해지역에 축성된 판축토성들에서 나타나는 내, 외벽에 모두 석축을 가하는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토축으로 축조된 체성에 석축으로 보강하는 것은 성곽이 입지한 장소는 행정적,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요지가 선택되어 축성되므로 이곳을 버리고 새로이 성곽을 신축하는데 따른 시간과 공력을 줄이고자 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기존의 성곽을 폐기하고 신축하는 것보다 수, 개축을 실시하여 성곽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로는 구량동성지와 화산리성지, 당감동성지, 회원현성지를 들 수 있으며 특히 구량동성지에서는 토축으로 축조된 체성부에 석축을 가한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도 9. 구랑동성지 외벽 입면상태

구랑동성지에서 토축으로 이루어진 체성부 중 기단부에 2~3단의 기단석축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 나란히 인접하여 석축으로 쌓아올린 구간은 약 8~10단의 석재가 수직으로 판축부를 피복한 듯한 형태로 잔존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체성부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해당하는 양상으로 최초의 토성 축조시 기단부에만 석재를 배치하였다가 수, 개축을 진행하면서 점차 석축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판축토를 감싸는 듯한 형태로 발전한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³⁹⁾

마산 회원현성지의 경우에도 외벽면에 일정높이로 돌로 걸쭉기를 실시한 형태가 확인되었고 화산리성지에서도 처음에 토성을 축조하고 그 후 유실로 인하여 내, 외벽에 석축을 가하는 등의 개, 보수 흔적이 확인되었다. 토성에 이처럼 석축을 덧대어 수축하는데 있어서의 이점으로는 우수를 비롯한 자연적인 요인으로부터 체성부를 보호하며 또한 석축을 보강하여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성의 신축에 따르는 석재의 수급에 비해 보다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랑동성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석축을 덧대어 시설하여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성곽의 방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성곽을 보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³⁹⁾ 체성 상부까지 일부 석재의 흔적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내, 외벽을 연결하여 판축토로 전체를 석재로 피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도 10. 토성의 석축화 과정

넷째, 영정주 간격의 변화가 관찰된다. 영정주 간격은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순수판축토성에서는 약 200cm 이내의 간격을 나타내며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300~400cm의 간격,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400cm이상의 간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의 성곽들에 비해 본고에서 다룬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의 성곽들의 영정주 간격은 최소 380cm에서 최대 495cm까지로 전 시기에 비해 1~2m 가량 넓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영정주 간격이 넓어지는 것은 구간별 축조공정단위가 더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성축조방법상의 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 체성폭은 영정주 간격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시대에 축성이 이루어지는 성곽들 중 성곽이 입지하는 특성상 산성의 경우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평지성 내지 평산성의 입지를 가지는 김해고읍성이나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에서는 영정주 간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지만 구릉성 산지에 입지하는 여타 성곽들에서는 대략 1.5배에 해당하는 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영정주 간격을 통한 축조시기의 흐름을 관찰한 종래의 연구결과⁴⁰⁾로는 적어도 6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판축토성에서 나타나는 영정주 간격이 200cm 이내이며 이후 7~8세기대로 접어들면서 300cm 이상으로 넓어지고 다시 9세기 이후로 약 100cm 가량 더 넓어지는

⁴⁰⁾ 고용규, 앞의 논문, 2009, 118쪽.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룬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에 축성된 성곽들의 경우 김해고읍성에서 확인되는 간격인 최대 495cm까지 넓어지며 일반적으로 380cm에서 430cm가량의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 영정주 간격으로 성곽의 정확한 축성연대를 설정하기에는 성곽의 입지유형이나 동일한 성곽내에서도 지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으나 삼국통일을 기준으로 약 7세기 이후부터 영정주 간격에 있어서 300cm 이상으로 변화의 양상이 보이며 다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400cm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시기별 영정주 간격 비교표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판축토성		통일신라 말 ~ 고려시대 판축토성	
성곽명	영정주 간격(cm)	성곽명	영정주 간격(cm)
순지리토성	100	김해고읍성	430~490
정북동토성	110~170	동래고읍성	400~435
풍납토성	110	당감동성지	420~430
오금산성	100~140	회원현성지	380~400
몽촌토성	180	선진리성	390
백석동토성	130~150	화산리성지	380
견학리토성	205	구량동성지	380~400
사산성	340~360	청해진토성	330~380

다섯째로 동일 성곽내에 토축과 석축 체성이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구량동성지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 구량동성지는 동북쪽 체성 구간은 석축으로 서남쪽 체성 구간은 토축으로 축조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양상은 동래고읍성과, 당감동성지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동래고읍성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郡條에 “古邑城이 海雲浦에 있으며, 東南은 石築, 西北은 土築인데 둘레가 4,430尺이며, 지금은 퇴폐하였다”라는 기사⁴⁷⁾가 확인되고, 당감동성지 역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동평현성이 동남은 석축, 서북은 토축으로 축조되어 있다는 기사⁴⁸⁾가 확인된다. 물론 동래고읍성이

47)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郡條 古邑城條 “古邑城 在海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四千三百三十尺 今頽廢”

나, 당감동성지의 경우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이러한 양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사를 참고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랑동성지에서 확인된 것처럼 유사한 시기의 이들 성곽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은 이 시기의 성곽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차후 발굴자료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사례가 더 수집된다면 새로운 유형으로의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종래에 이러한 형태의 성곽에 대해 ‘토석혼축성’, ‘토석교축성’,⁴³⁾ ‘토석잡축성’,⁴⁴⁾ ‘토석양축성’, ‘토석병축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토석혼축성’의 경우 흙과 돌을 섞어 성체를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에 대한 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형식의 성곽에 대해서는 ‘토석양축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잘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연해지역의 관축토성들의 축조배경에 대해 검토해보면 이러한 관축토성들이 모두 해안가에 입지하는 특성을 볼 때 주요 목적은 바다로 침공해 오는 세력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해양으로부터 침공하는 세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왜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해인 태조20년(937)에 고려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최초의 기록⁴⁵⁾이 있으나 적어도 11세기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인을 송환하였다는 기록 정도만이 확인된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래 왜구에 의한 침략이 빈번하였던 바 연해지역에 성곽을 쌓아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와 해안경계에 영향을 끼쳤던 세력 중 하나는 동여진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최초의 동여진의 침입 기록은 “목종 8년(1005)봄 정월에 동여진이 등주를 노략질하여 주진과 촌락 30여 곳을 불사르고 가니 장수를 보내어 막았다.”⁴⁶⁾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고려사 병지의 城堡條와 鎭戍條를 보면 목종(997-1009)대 이전에 축성된 성곽은 북계 지역의 비율이 단연 많으나 목종대에는 동계지역의 축성비율이 약 50%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목종대인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안지역에 대한 방비가 급격히 강화됨을 알 수 있고 목종 바로 다음대인 현종대에 동여진의 해적이 경주를 노략질 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⁴⁷⁾ 그리고

42)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蹟條 “東平縣城 在縣南二十里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三千五百八尺 今頽”

43) ‘토석혼축성’의 다른 명칭. 문화재청, 『한국성곽 용어사전』, 2007.

44) ‘흙과 돌 등으로 마구쌓은 성’을 일컬음, 문화재청, 위의 책, 2007.

45) 『日本略記左』 承平 7年 8月 “右大臣以下著左仗 開見高麗國牒等”

46) 『高麗史』 卷3, 世家 穆宗 8年 正月.

이시기에 전선을 만들어 동해안에 배치하였다고 하며 이 지역에 대한 축성작업 또한 동반하여 이루어졌는데 “(현종 2년에) 清河, 興海, 迎日, 蔚州, 長鬐에 성을 쌓았다⁴⁸⁾”는 기록이 보인다. 이에 동해안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세력에 대한 감시, 저지의 목적으로 이 당시 울주지역에 위치한 화산리성지나 반구동 토성이 축성내지는 개축되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비단 울주 지역 뿐만 아니라 사료에 언급된대로 경상도 연해지역 전반에 대한 성곽의 초축 내지는 수, 개축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경상도 연해지역에 축성된 판축토성들의 초축 혹은 수축시기에 있어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먼저 당감동성지의 경우 보고지는 초축 시기를 11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동래고읍성의 경우 1차 수축시기를 11세기 전반 현종대로 보고 있으며 회원현성의 1차 수축 역시 11세기 전반 현종대로 보고 지는 판단하고 있다. 선진리성의 2차 수축도 11세기 전, 중반 현종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시기에 전국단위 혹은 최소한 경남지역 성곽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축 내지는 수, 개축을 시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연해지역 방어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들은 치소성과 보루성으로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해지역의 축조양상을 잠깐 검토해보면 먼저 강원도(영동) 연해지역의 경우 경상도 연해지역과 동해안을 공유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강원도 연해지역 성곽에 관해 살펴보면,⁴⁹⁾ 간성읍성이나 강릉읍성, 양양읍성등을 거점성으로, 백촌리토성이나 봉포리토성, 오봉산고성, 영진리 토성, 교허성등이 해안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거점성의 경우 일정한 범위안에 6~8개소의 해안성들을 관할하며 해안성들은 규모면에서 체성 둘레 100~500m 사이에 해당하는 소형의 성곽들로 동해로 침입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1차적 방어선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거점성의 경우 최초에는 토축으로 축조되었으나 점차 석축으로 수, 개축을 진행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요소는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에서 관찰되는 토성의 석축화와 유사한 요소이며 해안성과 거점성의 분류 또한 치소성과 보루성으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는 경상도 연해지역의 판축토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연해지역의 경우 해안성들은 석축으로 축조된 성곽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 후기로 가면서 권금산성이나 두타산성과

47) 『高麗史』卷4, 世家 顯宗

48) 『高麗史』卷82, 兵 志穆 城堡

49) 김진형,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9~70쪽.

같은 고협처에 위치한 대규모의 입보용 석축산성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연해지역의 경우 경상도 연해지역과 남해안을 공유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전남 해안지역 성곽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해안보다는 내륙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곽이 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점차 해안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적인 요충지나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많이 축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⁵⁰⁾ 그러나 대부분 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축성재료 또한 석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 연해지역에 위치하는 토성 가운데 순천 해안지역에 입지한 홍내동토성의 경우 나말여초 시기에 순천의 호족이었던 박영규와 관련하여 호족의 주요 거점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⁵¹⁾ 홍내동토성은 기존에 해룡산성으로 명칭 되어 오던 유적으로 해안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전체 추정 둘레 약 2,085m로 비교적 규모가 큰 토성이다. 앞서 살펴본 경상도 연해지역에 축조된 판축토성들은 ‘官’으로 통칭할 수 있는 정부의 통제 하에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홍내동토성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말에서 고려가 건국되기까지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혼란기에 지방호족들에 의해 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들 성곽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경상도 연해지역에 축성된 판축토성들은 공통적으로 해안 혹은 강과 가까운 평지 내지는 비교적 표고가 낮은 구릉성산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대다수가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판축토성 기단부는 비교적 조잡하게 가공된 세장방형의 석재를 활용하여 축조한 점에 있어서 유사한 속성을 보이거나 일부 성곽에서는 석축을 가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영정주 간격에 있어서 치소성에서는 대부분 400cm 이상에서 최대 495cm까지 확인되고 보루성에서는 380~400cm의 간

⁵⁰⁾ 양해웅, 「전남지역 성곽의 권역별 비교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6쪽.

⁵¹⁾ 최인선, 「순천 홍내동 토성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18, 한국성곽학회, 2010, 58~59쪽.

격을 가지고 있어 성격과 기능 및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성부 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였다. A, B형 중 치소성으로 사용된 성곽은 체성부 폭이 6m 이상, 최대 10m에 가까운 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루성들에서 나타나는 체성폭은 4.5~5.5m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분류한 결과 나말여초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은 성곽이 가진 평면둘레, 영정주 간격, 체성폭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A형(김해고읍성), B형(마산 회원현성지, 사천 선진리성, 동래고읍성, 당감동성지), C형(울주 화산리성지, 울산 반구동 토성, 부산 구량동성지)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행정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는 치소성과 군사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보루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각의 州, 郡, 縣의 중심이 되는 성곽과 이들에 배속되는 형태로서의 군사적 용도를 가진 성곽의 분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말여초 시기의 경상도 연해지역 판축토성들은 삼국시대의 산성 중심의 축성에서 통일신라 이후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러 국가체제의 정비 및 해양으로 침공하는 외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차원에서 연해지역의 평지를 비롯한 구릉성 산지를 중심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려 말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 규모가 대단위를 이루며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에 내륙으로의 피난 및 입보로 인하여 연해지역이 폐쇄해지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가 조선전기의 연해읍성의 축성으로 다시금 경상도 연해지역 방어의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투고일 2013년 7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30일 ■

참고문헌

<국내>

- 馬山市, 『馬山茲山城址 地表調査報告書』, 1988.
- 심봉근, 「新羅城의 築城手法 二例」, 『백제연구』1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8.
- 東亞大學校博物館, 『蔚州華山里城址』, 1990.
- _____, 『蔚山伴鷗洞土城』, 1990.
- 忠南大學校博物館, 『목천토성』, 1992.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稷山 蛇山城』, 1994.
- 夫餘文化財研究所, 『부소산성-발굴조사 중간보고』 I, 1995.
- 심봉근,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학연문화사, 1995.
- 國立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996.
- 나동욱, 「慶南地域의 土城 研究-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을 중심으로-」, 『박물관 연구논집』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堂甘同城址』 I, 1996.
- 夫餘文化財研究所, 『부소산성-발굴조사 중간보고』 II, 1997.
- 김용민, 「扶蘇山城의 城壁築造技法 및 變遷에 대한 考察」, 『한국상고사학보』 26, 1998.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堂甘同城址』 II, 1998.
- 夫餘文化財研究所, 『부소산성-발굴조사 중간보고』 III, 1999.
- 고용규, 「南韓地域 版築土城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順天大學校博物館, 『順天 海龍山城』, 2002.
- 송용덕,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양해웅, 「전남지역 성곽의 권역별 비교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재춘,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3.
- 차용걸 외, 『京畿道の 城郭』13, 경기문화재단, 2003.
- 忠淸文化財研究員, 『대전 월평동산성』, 2003.
- 현남주, 「京畿 中西部地域 中世城郭 研究」,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심정보,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4.
- 문화재청, 『한국성곽 용어사전』, 2005.
- 심봉근, 『韓國 文物의 考古學的 理解』, 학연문화사, 2005.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대전 계족산성』, 2005.
- 東義大學校博物館,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 江原文化財研究所, 『束草 權金城』, 2007.
- 김호준, 「京畿道 平澤地域의 土城 築造方式 研究」, 『문화사학』27, 문화사학회, 2007.
- 慶南文化財研究院, 『泗川 船津里城』, 2007.
- _____ , 『東萊 古邑城址』, 2007.
- 이일갑,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최종석, 「高麗時代 ‘治所城’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馬山 會原縣城』, 2008.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金海古邑城』, 2008.
- 영남고고학회, 『영남의 성곽-토성에서 왜성까지-』, 2008.
- 이일갑,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평면형태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13,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 고용규, 「고려시대 성곽의 축성법」, 『한국성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성곽학회, 2009.
- 김진형,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손영식, 『韓國의 城郭』, 주류성, 2009.
- 최인선, 「순천 흥내동 토성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18, 한국성곽학회, 2010.

Abstract

A Study on Panchuk Mud Wall of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Silla and early Koryo

Kim, Gab-Jin

As the recent excavation cases of the panchuk mud wall distributed in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are increasing, it is considered that understanding of its general character is importan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understand and generalize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nchuk mud walls of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based on locations, scales and construction methods for the analysis of 8 medieval panchuk mud walls distributed in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in which academic investigation has been made so far and examine one side of the castle's character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Dynast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anchuk mud walls' characteristics in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in the late Silla and early Koryo, they are located in strategic points of the coast and in addition, most of them were confirmed to have the plane type of a square. The composition of the base has high frequency to utilize quadrangle stones and the tendency to have a high frequency to add reinforcing walls to the mud walls appears. In addition, the panchuk mud walls of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are possible to be regularly classified through the wood frame space and castle wall width and this is confirmed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unctions of each castle.

The panchuk mud walls of the coastal regions in Gyeongsang Province in the functional aspec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rt and castle. Based on the plane circumference, they can be divided into A type with over 2,000m (Kimhae Goeupseong), B type with 1,000~2,000m (Masan Hoewon Hyunseongzi, Sacheon Seonjinriseong, Dongrae Goeupseong,

Danggam Dongseongzi) and C type with less than 1,000m (Ulju Hwansan-ri Seongji, Ulsan Bangu-dong Mud Wall, Busan Gurang Dongseongji) an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ve differences by characteristics in wood frame space or castle wall besides plane circumference. It is considered that by location, the castles located in inland regions had the administrative central function in the regions and the forts located near to the coastal regions focused the military function for coastal precaution, guard and check.

Moreover, according to the judgment from the differences shown in the plane circumference, altitude and wood frame space, it is thought that periodic changing aspects appear. Furthermore, characteristics aspects such as high frequency to add a reinforcing wall to a mud wall and appearance of the stair type inside wall are shown.

The construction purposes of these castles are considered to internally complete a ruling system and externally keep up with forces invading from the coast such as Japanese pirates and Eastern Jurchen.

Key Words : panchuk mud wall, coastal regions, base, wood frame,
wall width, fort, castle.